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2. 9. 16.(금) 06:00 ~ 2022. 9. 18.(일) 23:00
- 상담건수¹⁾: 1,497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2명)

-프로그램명 : 「주현미의 러브레터」

-방송일시 : 2022. 9. 18.(일) 2R (09:00-11:00)

본인은 주현미 씨의 오랜 팬으로, 7080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옛 가수들의 노래를 많이 선곡해주어 무척 만족하며 청취하고 있다. 매번 좋은 기획으로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어주는 제작진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당 방송만의 따뜻한 감성도 마음에 든다. 앞으로도 즐겁고 인간적인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 진행자 섭외 제언(7명)

-프로그램명 : 「동네 한 바퀴」

-방송일시 : 2022. 9. 17.(토) 1TV (19:10-20:05)

우리나라 곳곳에 위치한 동네들을 돌아보며 진행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재미있어 꾸준히 시청해왔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는 바깥출입이 어려웠기에 방송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꼈다. 그런데 진행자가 김영철 씨에서 이만기 씨로 교체된 이후로는 방송의 재미가 떨어졌다. 해당 방송 특유의 정감을 살릴 수 있는 김영철 씨가 다시 진행을 맡아주기 바란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동네 한 바퀴’ 외 7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살림하는 남자들’ 관련(동의수 764) : 미성년 남아 포경 및 전시로 인한 성 학대 정황 사과 바랍니다.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1) 7.1일부터 프로그램별 인터넷의견은 보고서에서 제외함.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1,497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²⁾	계
848	27	-	-	622	1,497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687	485	39	-	-	286	1,497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288	1,209	-	1,497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1,131	14	124	228	1,497

시청자 의견	문 의
<p>【시사·교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의 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호평 ○ 「국악 한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제언 ○ 「사랑의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자 호평 ○ 「동네 한 바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자 섭외 제언 ○ 「동물극장 단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호평 ○ 「생방송 심야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자 섭외 제언 <p>【라디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호평 ○ 「주현미의 러브레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호평 	<p>【방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시 내고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댓국’ 연락처 문의 78건 ○ 「2TV 생생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꾸미볶음’ 연락처 문의 55건 ○ 「동네 한 바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개떡’ 연락처 문의 30건 ○ 「주말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 문의 28건 ○ 「전국노래자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정보’ 문의 22건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시청」 문의 12건 ○ 「주파수」 문의 1건 외 1건 <p>【경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문의 59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24건 ○ 「전화교환」 문의 18건 ○ 「수신료」 문의 16건 ○ 「사업 및 행사」 문의 4건 외 3건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진 문의사항 포함 228건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시사·교양]	
방송 호평	<p>○ 「남북의 창」 ‘통일로 미래로’(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9. 17.(토) 1TV (07:50-08:30) - ‘통일로 미래로’ 코너에서 민간인은 출입할 수 없는 비무장지대의 일부 길이 70여 년 만에 정식으로 개방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10개 지역에 11개의 테마 노선을 꾸렸다는데, 이날 리포터가 그 중에서 강원도 양구 지역을 소개했다. 방송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언젠가는 금강산까지 걸어서도 갈 수 있길 바라며 유익하게 시청했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방송 제언	<p>○ 「국악 한마당」 ‘순수한 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9. 17.(토) 1TV (12:10-13:05) - ‘2021 KBS 국악대상’에서 대상 수상에 빛나는 소리꾼 김준수 씨의 무대를 소개했다. 그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음악 동인들과 함께 하는 특별한 무대들로 꾸며졌는데, 기타와 바이올린, 피아노 등 서양 악기들이 반주로 등장했다. 그래서인지 순수한 국악은 느낄 수 없었고, 오히려 밴드에 가까워 아쉬웠다. 국악의 전통성을 계승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출연자 호평	<p>○ 「사랑의 가족」 ‘지리산에 살어리랏다’(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9. 17.(토) 1TV (13:05-14:00) - 지리산 자락의 외딴집에서 30년째 살고 있는 김기룡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김기룡 씨는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당시의 호흡량은 3분의 1정도로 일상생활도 버거울 정도였다고 한다. 숨을 쉬기 위해 대금을 시작했다, 노력 끝에 지금의 호흡량은 건강한 성인의 두 배 이상이라고 하니 존경심이 들었다. 악조건에 좌절하기보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낸 김기룡 씨를 응원한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진행자 섭외 제언	<p>○ 「동네 한 바퀴」 (7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9. 17.(토) 1TV (19:10-20:05) - 우리나라 곳곳에 위치한 동네들을 돌아보며 진행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재미있어 꾸준히 시청해왔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는 바깥출입이 어려웠기에 방송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꼈다. 그런데 진행자가 김영철 씨에서 이만기 씨로 교체된 이후로는 방송의 재미가 떨어졌다. 해당 방송 특유의 정감을 살릴 수 있는 김영철 씨가 다시 진행을 맡아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방송 호평	<p>○ 「동물극장 단짝」 「경희 파라다이스, ‘행복’이 꽃 피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9. 17.(토) 1TV (20:05-21:00) - 16년 전 귀농해 경기도 포천시에서 손수 농장을 가꾸며 사는 남경희·경연숙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약 5천 평 대지에 개와 고양이, 닭과 칠면조 등 60여 마리의 다양한 동물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인생 후반전의 노선을 과감하게 바꿨다는 부부의 인생과 철학을 엿볼 수 있어 감명 깊은 시간이었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출연자 섭외 제언	<p>○ 「생방송 심야토론」 (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9. 17.(토) 1TV (23:15-24:25) - 이날은 정국의 뇌관으로 대두된 이재명 대표 수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논란의 쟁점을 짚어보고, 정국 안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했다. 그런데 김성희 정치연구소 썬크와이 소장은 지난 방송인 9월 3일에도 출연했고, 그 외에도 「더 라이브」와 「사사건건」에도 주기적으로 출연하고 있다. 특정 인물의 반복적인 출연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라디오]	
방송 호평	<p>○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R (월-금) (15:30-15:58) - 다양한 분야의 리더에서부터 이 시대 이슈가 되는 인물, 때로는 숨어있는 인물도 발굴해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청취하고 있다. 전문적인 게스트와 함께 한 가지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점이 유익하다. 청취자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열심히 청취하도록 하겠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방송 호평	<p>○ 「주현미의 러브레터」 (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9. 18.(일) 2R (09:00-11:00) - 본인은 주현미 씨의 오랜 팬으로, 7080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옛 가수들의 노래를 많이 선곡해주어 무척 만족하며 청취하고 있다. 매번 좋은 기획으로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어주는 제작진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당 방송만의 따뜻한 감성도 마음에 든다. 앞으로도 즐겁고 인간적인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